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

일시 : 12월 3일 2시(1시부터 사전행사)
장소 : 인사동 남인사마당(문화마당) - 집회 후 광화문 앞까지 행진

주최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교통, 녹색미래, 환경정의,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11월 30일 현재)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라!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강화하라!
한국정부는 아태기후파트너십에서 탈퇴하라!

교통편
버스 지선(G) : 0212, 1016 간선(B) : 100, 143, 150, 160, 161, 200, 262, 271, 300, 370, 470, 471, 601, 705, 720
버스 광역(R) : 9301, 9401, 9402, 9411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이 리플릿은 '다함께' 가 만들었습니다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

일시 : 12월 3일 2시(1시부터 사전행사)
장소 : 인사동 남인사마당(문화마당) - 집회 후 광화문 앞까지 행진

주최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교통, 녹색미래, 환경정의,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11월 30일 현재)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라!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강화하라!
한국정부는 아태기후파트너십에서 탈퇴하라!

교통편
버스 지선(G) : 0212, 1016 간선(B) : 100, 143, 150, 160, 161, 200, 262, 271, 300, 370, 470, 471, 601, 705, 720
버스 광역(R) : 9301, 9401, 9402, 9411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이 리플릿은 '다함께' 가 만들었습니다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

우리는 이미 지난 9월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기상 이변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1개 나라들이 이 심각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교토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결정적인 지구 보호 노력에 동참하길 거부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토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석유 기업과 석유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자동차 기업의 이윤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교토협약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교토협약은 무시하거나 약화돼야 하기는커녕 되레 감축 목표치를 높이는 쪽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은 미국과 호주의 교토의정서 비준과 배출량 감축 기준의 강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11월 28일~12월 9일) 일정에 맞춰 이 날 33개 나라에서 시위가 열리고 1백여 개 단체가 이 행동에 참가합니다.

전 인류와 지구의 존속,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행동에 함께 합시다.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

우리는 이미 지난 9월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기상 이변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1개 나라들이 이 심각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교토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결정적인 지구 보호 노력에 동참하길 거부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토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석유 기업과 석유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자동차 기업의 이윤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교토협약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교토협약은 무시하거나 약화돼야 하기는커녕 되레 감축 목표치를 높이는 쪽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은 미국과 호주의 교토의정서 비준과 배출량 감축 기준의 강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11월 28일~12월 9일) 일정에 맞춰 이 날 33개 나라에서 시위가 열리고 1백여 개 단체가 이 행동에 참가합니다.

전 인류와 지구의 존속,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행동에 함께 합시다.